

# 지역 벤처투자 살린다...호남 50억 규모 '엔젤허브펀드' 조성

### 중기부 지역 벤처투자 활성화 계획...100억원 엔젤징검다리펀드도 지난해 광주 벤처투자 573억원·전년비 95%↑ ... 광역시 최대 증가폭

매년 '0%대' 비중에서 그치는 광주·전남 벤처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정부가 올해 호남권에 50억원 규모 '지역 엔젤허브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광주·전남 두 지역 모두 벤처투자 비중이 0%대에 그쳤지만 지난해 벤처투자액 증가율은 각각 5대 광역시, 9개도 가운데 최고를 기록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전용펀드를 4700억원 이상 규모로 조성하는 내용의 '지역 벤처투자 활성화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지방 기업의 성장에 필요한 투자 재원을 4700억원 이상 공급하는 것으로, 우선 지역의 초기 엔젤투자 활성화 기반 구축을 위해 지역엔젤

허브가 있는 광주·전남·전북·제주를 아우르는 호남권과 충청권에 '지역 엔젤허브펀드'를 50억원씩 총 10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또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을 받은 지방 우수 창업기업에 275억원 규모의 보증연계 직접투자를 추진한다.

아울러 비수도권 엔젤투자가 후속 투자로 연계되도록 4개 광역권에는 각각 100억원 내외로 총 400억원 규모의 '지역 엔젤징검다리펀드'를 신규 조성한다. 4개 광역권에는 광주·전남·전북·제주 등 호남권이 포함된다.

중기부는 지난해 모태펀드 1000억원 출자로 결성된 '지역뉴딜 벤처펀드'에 더해 올해 600억원을

**?** 엔젤투자  
벤처기업이 필요로 하는 자금을 개인 투자자들 여럿이 돈을 모아 지원해주고 그 대가로 주식을 받는 투자.

추가로 출자해 총 4000억원 규모의 지역뉴딜 벤처펀드도 조성할 계획이다.

이처럼 당국이 지역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4700억원 이상 규모 지방전용펀드 조성계획을 세운 건 투자여건이 수도권에 편중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벤처투자액 7조467억원 중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투자액은 5조7672억원으로 전체의 81.8%를 차지했고, 비수도권은 18.2%에 그쳤다. 특히 서울 투자액은 4조3234억원으로, 지난해 처음 비중 60%를 넘겼다.

서울 투자액 비중은 58.1%(2017년)→55.1%(2018년)→59.6%(2019년)→55.1%(2020년)→

61.4%(2021년)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광주·전남 두 지역은 해마다 0%대 비중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광주 벤처투자액은 573억원으로, 전국 대비 0.8% 비중을 차지했다. 전남도 0.7%(490억원)로 사정은 마찬가지다.

최근 5년 동안(2017~2021년) 광주 투자액 비중은 0.7%(투자액 143억원)→0.8%(# 252억원)→0.9%(332억원)→0.7%(294억원)→0.8%(573억원) 등에 그쳤다. 전남 역시 0.7%(# 150억원)→0.8%(245억원)→0.6%(238억원)→0.3%(126억원)→0.7%(490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광주와 전남은 지난해 벤처투자액이 크게 늘면서 각각 5대 광역시, 9개도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기도 했다.

지난해 광주 투자액은 573억원으로, 전년보다 94.9%(279억원) 급증했다. 전남지역도 126억원에서 490억원으로, 288.9%(364억원) 늘어났다.

이는 전국 평균 증가율 77.8%(3조9642억원→7조467억원)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광주·전남 벤처투자는 크게 늘었지만 벤처기업 수는 전년보다 오히려 줄었다.

지난해 광주 벤처기업은 769개로, 전년(805개)보다 4.5%(-36개) 감소했다. 전남은 889개에서 813개로, 8.5%(-76개) 줄었다.

지난해 광주·전남 벤처기업 수는 전국 3만8319개 대비 각각 2.0%, 2.1% 비중을 차지했고 수도권 비중은 62.1%(2만3794개)에 달했다.

지난해 1~10월 기준 기술창업기업은 광주 4485개·전남 4120개로, 전국(19만8277개) 대비 각각 2.3%, 2.1% 비중을 차지했다.

지자체와 지역 테크노파크, 공공기관 등이 참여하는 벤처펀드의 경우 출자액이 지난해 광주는 10억원 늘어난 110억원으로 나타난 반면, 전남은 2019~2021년 3년 연속 '0'으로 집계됐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광주은행 "마이데이터로 숨은 돈 찾고 커피도 받으세요"

### 3월 1일까지 가입 이벤트 자동차 시세 등 추가 제공 예정

지난달 초 본격적으로 마이데이터(본인 신용정보관리업) 서비스를 시작한 광주은행이 다음달 1일까지 경품 행사를 진행한다.

광주은행은 오는 3월1일까지 '마이데이터에서 숨은 돈 찾고 커피 한잔 할래요' 행사를 연다고 3일 밝혔다.

경품 증정 대상은 광주은행 스마트뱅킹 앱에서 마이데이터에 가입한 뒤 1개 이상 다른 금융기관 자산을 연결한 모든 고객이다.

문자와 앱을 통한 마케팅 수신 동의를 하면 커피 상품권을 준다.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가입하면 광주은행 계좌를



보유하지 않은 고객을 포함해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고객이 은행, 보험, 증권, 카드사 등을 따로 방문하지 않더라도 스마트뱅킹 앱 하나로 다른

금융회사의 자산명세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부동산 시세조회, 실손보험 빠른 청구, 카드 소비 분석, 은퇴 계산기, 인생여행지 찾기 등 7가지 부가서비스도 이용 가능하다.

광주은행은 앞으로 고객 데이터를 바탕으로 맞춤형 상품 추천과 금융혜택을 제공하고, 신용접수관리·자동차 시세 조회·배달 앱 연계 서비스 등 다양한 외부 제휴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할 예정이다.

김훈 광주은행 디지털전략부장은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선보이며 완성도 높은 차별화된 디지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디지털 플랫폼 경쟁력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번 이벤트를 통해 많은 고객들이 편리한 광주은행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농업인 재기 지원 '희망동행 프로젝트' 농업인신용회복 컨설팅을 통해 신용을 회복한 영광지역 농업인을 찾아 재기를 응원하는 '농업인 희망동행 프로젝트'를 펼쳤다. 노명하(왼쪽 두 번째) 지사장이 농가에 생필품을 전달하고 있다. <농협 전남본부 제공>

## 사라진 은행점포 1500개...5년간 광주 26곳·전남 13곳 폐쇄

### 전체 60% 수도권 집중

최근 6년 동안 국내에서 사라진 은행 점포가 1500여 곳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스마트폰과 자동현금인출기(ATM) 사용이 불편한 금융소외계층이나 노약자의 금융서비스 권리를 무시한 처사로, 금융 당국의 '은행 지역재투자 평가' 때 해당 은행들이 불이익을 겪어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같은 내용은 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국내 은행 점포 폐쇄 현황' 자료에 담겼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국내에서 폐쇄된 은행 점포는 모두 1507개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6년 273개, 2017년 420개, 2018년 115개, 2019년 135개, 2020년 332개, 지난해 1~10월 238개 등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동안 광주·전남에서 사라진 은행 점포는 39개에 달한다. 같은 기간 동안 폐쇄된 전국 점포는 1275개로 집계됐다.

광주에서는 전국 폐쇄 점포의 2% 비중을 차지하는 26곳이 사라졌다. 전남은 1% 비중은 13곳이 폐쇄됐다.

이 기간 동안 서울 515개(40.4%), 경기 245개(19.2%) 등 수도권에서 폐쇄된 은행 점포 수가 전

체의 약 60%였다.

강 의원은 "은행이 인터넷·모바일 뱅킹 등 비대면 거래 증가를 이유로 점포를 폐쇄하는 것은 은행이 가진 공공성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으로, 스마트폰과 자동현금인출기(ATM) 사용이 불편한 금융소외계층이나 노약자의 금융서비스 권리를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은행들이 점포 폐쇄 등 현황을 반기별로 대외에 공표하도록 하는 동시에, 금융당국이 '은행 지역 재투자 평가'를 할 때 은행 점포 감소에 대한 감점 부과 폭을 확대하는 등 불이익을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신용보증기금 'ESG경영 역량 평가 보증' 도입

### 우수 기업에 보증한도 확대 등

신용보증기금은 ESG경영 우수기업에 보증한도를 확대해주는 'ESG경영 역량 평가 보증' 제도를 도입했다고 3일 밝혔다.

신보는 지난해 12월 정부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K-ESG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자체 'ESG경영 역량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기업의 ESG경영 역량을 보증 심사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을 추진해 왔다.

평가는 제조업과 비제조업을 나눠 시행된다. 환경과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 부문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ESG경영 역량이 우수한 기업에게는 보증한도 확대, 심사방법 및 전결권 우대 등 차등화된 심사 체계를 적용한다.

또 유동화회사보증 편입과 경영상담 우대 혜택을 주고 '고용의 질 우수기업'에 선정되면 가점을 준다.

신보는 지난달 신보형 ESG금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ESG금융팀을 'ESG금융센터'로 확대 개편하고, ESG 전 분야를 포괄하는 신상품 개발 및 제도 개선 업무를 전담하도록 했다.

'ESG경영 역량 평가 보증'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관할 영업점이나 신용보증부에 하면 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